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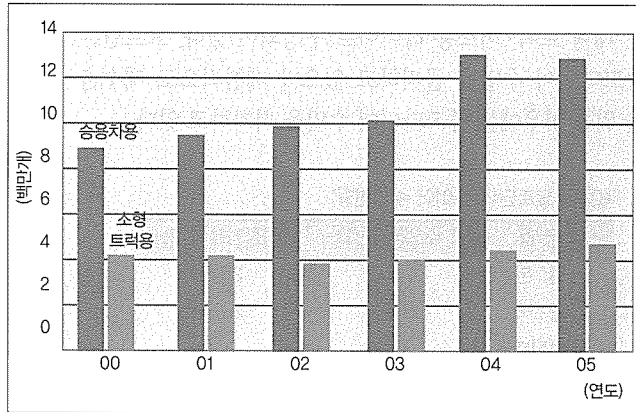
멕시코 타이어 시장

05년 멕시코의 타이어 수입은 수출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승용차와 소형트럭용 타이어 수입은 약 1,500만개였으며 이에 반해 수출은 약 600만개였다. 멕시코에서 타이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 순이고, 한편 멕시코는 미국으로 승용차용 타이어를 6번째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05년 멕시코의 교체용 타이어 전체 출하는 약 2,040만개로 승용차용이 1,310만개, 소형트럭용 510만개, 중대형 트럭용이 220만개였으며, 신차용 타이어 전체 출하량은 790만개를 기록했다.

다음은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교체용 타이어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점유율이다.

〈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출하 〉



〈 승용차용 교체용 타이어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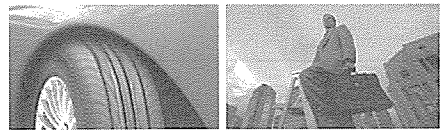
브랜드	2005	브랜드	2005
Goodyear	20.0	Multi-Mile	2.0
Firestone	16.0	Yokohama	2.0
Tornel	13.0	Eldorado	1.5
Euzkadi	11.5	Kumho	1.5
Uniroyal	7.0	Continental	1.0
BFGoodrich	6.0	Dunlop	1.0
Bridgestone	6.0	Pirelli	1.0
General	3.5	Sigma	1.0
Hankook	2.0	Toyo	1.0
Michelin	2.0	Others	3.5

〈 소형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 〉

브랜드	2005	브랜드	2005
Goodyear	22.0	Multi-Mile	2.0
Firestone	17.0	Yokohama	2.0
Tornel	17.0	Eldorado	1.5
Euzkadi	10.0	Dunlop	1.0
BFGoodrich	6.0	Michelin	1.0
Uniroyal	6.0	Toyo	1.0
Bridgestone	3.0	Sigma	1.0
General	2.5	Others	4.0
Continental	2.0		

36
+37

〈미국 「Modern Tire Dealer」 06, 1월호〉



요르단 타이어 시장

요르단의 타이어 시장규모는 연간 약 4천만\$이나 자체 생산이 없어 전량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어 용도별 시장수요는 승용차용 타이어가 전체 수요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25%는 상용차, 나머지 25%는 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요르단은 중고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재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중고타이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요르단은 자동차 등록대수 80만대를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이 증가해 매년 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향후 타이어시장 역시 차량증가에 따른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현지 타이어 시장은 가격시장으로서 전체 수요의 25%정도가 고가제품을 선호하고 나머지 75%는 가격조건에 매우 민감하다. 이라크 전후 요르단 수입물량 중 일부는 자르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이라크로 재수출됐는데, 전체 수입 물량의 약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월 암만 폭탄테러 사건 이후 이라크인의 요르단 입국이 격감하고 있어 이라크 재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국가별 제품 진출전략 및 현지 평가를 살펴보면,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산은 자국의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무기로 고가품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높은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압도적인 현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타이어는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가격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사들의 현지 에이전트들에 대해 대금지급 조건(분할납부)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현지 딜러에게도 대금 분할 납부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04년 요르단의 타이어 수입현황〉

국 가	수입액 (천\$)	시장점유율 (%)
일 본	11,472	28.68
중 국	8,320	20.80
이집트	3,630	9.10
인도네시아	2,848	7.12
한 국	2,324	5.81
대 만	1,579	3.95
독 일	1,541	3.85
이탈리아	1,358	3.40
터 키	955	2.39
네덜란드	954	2.39
인 도	947	2.37
프랑스	852	2.12
기 타	1,831	4.57
합 계	40,000	100.00

〈KOTRA 암만무역관, 05.12.12〉

* 자료원 : 요르단 관세청 통계

* 주 : 우리나라 통계기준 580만달러와의 차이는 이라크 재수출 물량 및 계수착오 등으로 추정

우크라이나 타이어 시장 동향

“더가품 수입관세 대폭 인하로 진출 확대 호기”

우크라이나 타이어 시장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05년 6월 23일부로 단행된 포괄적인 수입관세 인하 조치에 의해 타이어의 수입관세도 대폭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 이전에는 타이어 수입관세가 무조건 개당 15유로였는데 6.23 조치에 의해 수입관세가 ‘타이어 가격의 15% 또는 5유로 중 많은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개당 가격이 높지 않은 한국산 등 중저가 제품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진출 확대의 호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저가 타이어의 경우 수입관세의 대폭적인 인하로 편법 통관을 할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식 통관을 하는 수입업체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많은 바이어들이 수입관세와 부가세(20%)를 가능한한 적게 내기 위해 세관에 뇌물을 주고 소위 ‘회색 통관(grey import)’을 해왔다. 04년에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되어 판매된 타이어의 매출액은 약 2,000만 달러로서 타이어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유력 경제지인 ‘비즈니스’는 추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척결의 1차 대상으로 세관을 지목하고 통관 질서확립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서 서서히 정상적인 통관으로 전환하는 수입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중저가 타이어이다. 그런데 중저가 타이어의 경우에 수입관세가 크게 인하되었지만 정상 통관을 함으로써 과거의 회색 통관시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관세 및 부가세(20%) 등으로 지불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타이어의 가격은 05년 중에 5~10% 상승했다.

중저가 타이어와 달리 고가 타이어의 경우 여전히 회색 통관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단가가 100유로일 경우 수입관세(15%)는 15유로가 되어 관세 인하 이전과 동일하며, 단가가 100유로 이상인 타이어의 경우 관세 인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05년 상반기 중 타이어 시장규모는 2.5~3백만개로서 금액으로는 1억 2천만\$ 내지 1억 4천만\$에 달하며, 이 중에서 수입품은 약 0.7백만개로서 금액으로는 1천6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Rosava, Dneproshina 라는 2개의 타이어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국산품이 60~7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

(KOTRA 키예프무역관, 05.12.28)